

전남광주 통합금고, 제한경쟁 수의계약 방식 '가닥'

광주은행·농협은행 합의 불발...연말까지 한시운영 조만간 심의 돌입...25조원 규모 재정 운용 '시험대'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연간 25조원 규모 재정을 관리할 통합금고 운영 방식이 금융기관 간 합의 불발로 제한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말까지 운영된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금고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고 운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통합 직후 곧바로 금고를 재지정하기보다는 올해 말까지 과도기 체제를 유지한 뒤, 내년 1월 정식 금고를 새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운영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근 실무 협에서 합의 도출이 무산되면서 평가 방식으로 방향이 선회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금고를 각각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은 연말까지 공동 운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1·2급고 배분과 운영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급고를 두고 경쟁이 집중됐다. 일반회계는 분할 운영이 불가능해 단일 금융기관이 전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1급고를 맡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율 합의 방식은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

제도적 제약도 즉각적인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상 금고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현행 전산 시스템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금고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 금고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1·2급고를 선정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신용도와 재무 건전성, 금리 조건,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기존 금고 지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제안서 설명회와 신청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운영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는 5월까지 마무리하

는 일정이 거론된다.

통합특별시 금고가 관리하게 될 재정 규모는 연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에 정부 인센티브가 반영된 수준으로, 단일 지방자치단체 금고로는 전국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 시·도의 금고 평균 잔액과 조세심 의 기준을 토대로 평가 기준과 일정을 공동으로 조율 중이며, 조만간 심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은행은 윤정경·김혜리·배미애(서영암농협), 문정아(강진농협)가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은 이인정(해남농협), 신지혜(나주축산농협), 최현원(신북농협), 헤아림상은 오세라(일로농협), 권미향·홍진아·배영주(봉황농협), 박성희(천지농협)가 각각 수상했다. 일반부문에서는 황인희(홍양농협), 홍진(여천농협)이 은상을, 김옥(도암농협)이 동상을, 이영하(팔영농협)가 헤아림상을 받았다.

홍원실 농협손해보험 전남총장은 "전국 1위 대상과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김재현 과정을 비롯한 29명의 수상자 모두가 전남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전남 농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광주은행 9년 연속 1위

지방은행 부문

광주은행, 9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인증식

광주은행은 1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인증식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송광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그룹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브랜드 경쟁력 확보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성장 의지를 다졌다.



광주은행, 9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인증식. 광주은행은 1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인증식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송광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그룹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해 브랜드 경쟁력 확보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성장 의지를 다졌다.

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연도대상 '역대 최대' 개인 29명 수상...전국 1위 대상·명예의 전당 헌액자 배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최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 대상과 명예의 전당 헌액자를 배출하는 등 관계 임직원 29명이 수상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전남총국은 개인 시상 부문에서 총 2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영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광양농협 김재현 과장은 탁월한 실적을 바탕으로 최고 영예를 안았고, 황산농협 윤대철 과장은 농협손해보험 최고 권위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종합부문 대상은 김재현(광양농협), 금상은 조미리(천관농협), 은상은 윤유철(해남진도축산농협), 강승희·오진희(서영암농협), 윤대철(황산농협), 오승자(안양농협), 송주경(북산농협)이 수상했다. 동상은 강주희(나주배원예

농협), 윤정경·김혜리·배미애(서영암농협), 문정아(강진농협)가 이름을 올렸다.

신인상은 이인정(해남농협), 신지혜(나주축산농협), 최현원(신북농협), 헤아림상은 오세라(일로농협), 권미향·홍진아·배영주(봉황농협), 박성희(천지농협)가 각각 수상했다. 일반부문에서는 황인희(홍양농협), 홍진(여천농협)이 은상을, 김옥(도암농협)이 동상을, 이영하(팔영농협)가 헤아림상을 받았다.

홍원실 농협손해보험 전남총장은 "전국 1위 대상과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김재현 과정을 비롯한 29명의 수상자 모두가 전남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전남 농업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최근 열린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1위 대상과 명예의 전당 헌액자를 배출하는 등 관계 임직원 29명이 수상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

원칙적 하도급(2차 도급) 제한

원칙 원도급사 직접 수행

예외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

①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해 하도급 여부 결정하고 발주기관에 통보

주요 심사 항목

- 하도급 필요성
- 동일 업무 여부
-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② 발주기관은 하도급 결정 심사 및 승인

※ 기존 하도급은 미흡,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이뤄지는 기존 하도급의 경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

일반 용역 등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기존 87.995% → 89.995%(2%p ↑)로 인상

도급계약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안양뉴스 자료: 고용노동부

농어촌공사, 녹조 대응 민관 기술협력

중기개사와 저수지 특성 맞춤형 저감 기술 공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기후 변화로 심화하는 농업용 저수지 녹조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 환경분야 신기술·신공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상승으로 농업용 저수지 내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다.

특히 기상청에서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라고 예고한 만큼,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선제적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는 녹조 예방과 저감을 실효성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

를 마련했다.

2019년부터 열리고 있는 이 설명회는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민관 기술 협력 플랫폼이다.

실제 지난해 설명회에서 발굴한 수질개선훈합이 농업용수 수질개선훈합에 도입되는 등 혁신 기술 발굴의 창구 기능을 해오고 있다.

올해 설명회에는 공사와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녹조 예방·제거 분야에서 신기술·신공법을 보유한 중소기업 7개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인공 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수질예측 모델 고도화'와 '오염 부하 및 영향 자동분석 소

프트웨어 개발'을 발표하며 양 기관의 최신 녹조 관리체계를 공유했다.

이어 참여기업들은 부력 기반 물순환 장치로 파장을 일으켜 녹조 원인 물질(인)의 발생을 억제하는 녹조 예방 기술, 조류로 인한 필터 막힘 현상을 방지하는 고효율 녹조 처리 기술 등 농업용 저수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소개했다.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녹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뒤,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을 도입해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정부,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뜨개질' 제동 도급 2년 보장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이른바 '뜨개질 계약'을 막고,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초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원도급사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의 필요성, 동일·유사 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 연합뉴스

신용회복위, 노인학대 예방·금융 취약 노인 지원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는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15일 노인학대 예방 및 금융취약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대피해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과 채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통해 재학대 예방과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은 상담·사례관리·금융지원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대 피해 및 경제적 위기 노인과 그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상담·사례관리·신용회복 지원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증진, 기관 간 협력 기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김용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역본부장은 "금융취약 노인의 채무 문제 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경제적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지난 15일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및 금융취약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상훈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어르신과 그 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더욱 촘촘히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카스, FIFA 월드컵2026 응원 이벤트

티켓 제공 등 공식스폰서 홍보...내달 9일까지 응모

카스는 FIFA 월드컵의 공식스폰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카스는 6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 경기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도 전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전개한다.

직관 티켓 추첨 이벤트, 월드컵 TV 광고, 한정판 카스, 굿즈 출시는 물론 지역 상권과의 협업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벤트도 기획 단계에 있다.

카스는 카스 프레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직관 기회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식당에서는 카스 생맥주 또는 병맥주를 구매할 땐 매장 내에 비치된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응모 페이지에 접속해 구매 제품을 활용·인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공식 온라인몰 '비어스마트오더'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는 카스 제품 구매 후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응모할 수 있다. 식당과 온라인에서는 5월 9일까지, 편의점·마트에서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1등 당첨자에게는 축구국가대표팀 예선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가 제공된다. 해당 패키지는 항공권, 숙박, 경기 입장권을 포함한다.

2등에게는 축구국가대표팀 홈 유니폼을, 3등에게는 머플러 등 응원 굿즈를 증정한다. 1등 당첨자는 5월 9일 당첨자 발표 행사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행사에는 FIFA 월드컵 2002의 감동을 함께한 전직 국가대표 선수도 참석해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서현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카스는 FIFA 월드컵 공식스폰서로서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서 국민과 함께 응원 경험을 축적해온 국내 유일 맥주 브랜드"라며 "이번 직관 티켓 이벤트를 시작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카스만의 차별화된 월드컵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